

투데이 칼럼

본격화 되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임박하고 있다.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북한에 맞서야 한다는 미국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동맹국들에게 비용 분담을 늘리도록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고 하며,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같다. 공화당 경선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각각 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경쟁을 맞서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종 후보가 되면 미국 대선 역사상 두 번째인 동일한 후보들의 재대결이 된다. 트럼프는 지난 8월 피의자의 얼굴을 담은 머그잔을 찍었는데,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머그잔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금하며 지지세를 과시했다.

사생활 문란에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독불장군인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핵심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

미 대선까지 13개월가량 남은 데다 트럼프로선 형사 기소라는 변수까지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 헌법은 기소됐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자신에 미치지 못한 점도 트럼프에게 호재다. 이런 가운데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식 제단과 센터 13곳은 지난 9월 7일, 민주당의 원칙 옹호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중단을 촉구하는 칼럼을 실으며 트럼프 경계를 공문화하고 나섰다.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제도적 방어'를 뜻하는 'Trump-proof'라는 신

조어가 떠돌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제도로 버틸 수 있게 미리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미국 대선은, 세계 질서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북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출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인 박해'라며 미국의 정치 체제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도 기다렸다는 듯 '전 세계가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하는가 하면, 타이완을 가져 오는 것은 명정하며 여권탄을 날렸다. 동맹이라 해도 안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언론사 시사만화의 역할

요즘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시사만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평(漫評)은 만화(漫畫)와 논평(論評)의 개념이 합쳐진 창작물이다. 작가의 독자적 철학과 해석이 담긴 것이다.

한국의 시사만화는 약 100년 동안 수많은 탄압과 검열의 대상이었다. 만평은 특유의 과장과 풍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한다. 권력은 유머를 혐오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의 아픔을 국민과 공감한 만평가들은 대중적 인기와 명성을 얻었다. 1980년대부터 신문사 내부 통제와 자기검열로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편집 방향에 따라 만평에 대한 수정 요구가 적지 않다. '생계형 작가'들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자기 그림'을 포기하고 양보한다. 시사만화가의 위치와 매체 환경이 예전과는 분명

히 다르다.

과거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독재시대'의 만평은 대중에게 강한 메시지였다. '민주 10년'은 시사만화계에선 '악조건'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급변하고 있다. 댓글 수준의 만평은 지양되어야 한다.

만평가들 스스로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비판과 풍자는 당연한 것이다. 대중들은 날카로운 만화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독자들의 소품이다. 최근 언론계에서 시사만화 위기론의 대두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과 구조적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만평가로서 시대적 역할은 분명히 있다. 독자들은 표현은 못해도 볼 줄은 안다. 한국의 시사만화는 독특하고 강력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권력에 대한 펜 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시사만화가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한 신랄한 논의가 절실하다.

사회의 병리 현상 '화병'

화병이 사회 병리 현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불지 마 살인' 등 강력 사건의 범인들은 개인적으로 화병이 시작이었다. 화병은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쌓여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 두통 등 신체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화병은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병이 있으면 대개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에 갇힌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 그리고 목이나 명치에 덩어리가 뭉친 느낌이 있다.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갖는다.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삶이 허무하거나 우울하게 느껴져 자주 한숨을 쉬기도 한다. 화병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마음의 힘이 있으면 그 환경을 정리하고, 스스로 이끌어 갈 힘이 생긴다. 화병 환자들은

대부분 불면증을 호소한다. 각종 병리 현상은 수없이 많다. 특히 빈부 격차의 심각성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빈부 격차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국회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재산 증식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끊임없이 등장한다. 공정사회 실현이란 구호는 말뿐이다. 사회 병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먼저 변해야 한다. 소시민들도 화병을 다스리는 명상이 필요하다.

조용한 곳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 호흡을 통해 나의 생명력을 느껴본다.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몸의 힘을 빼고 근육을 이완시킨다. 잡념도 흘러보내자.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에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가장 편안하게 호흡하자.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왕이 “대화 통해 양국 관계 회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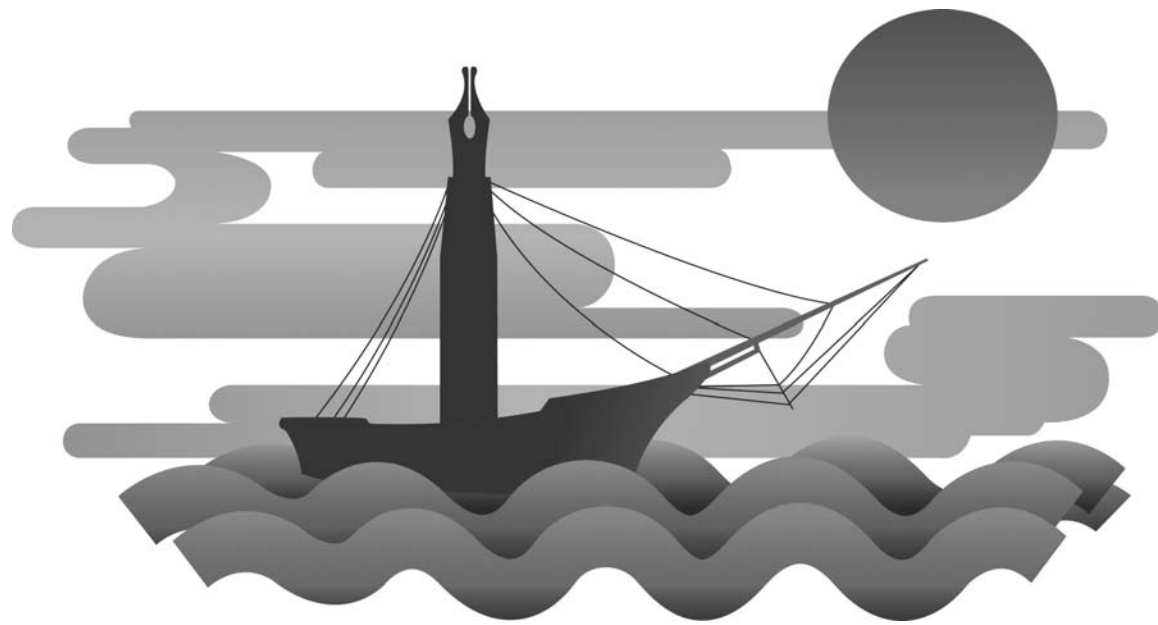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과의 건설적 대화를 매우 기대한다”라고 말했고 왕 부장은 “대화를 통해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면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로 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랍 이스라엘인 무사 귀환 기원 ‘희망의 풍선’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희망의 풍선’ 행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한 공원에서 열려 피랍자들의 사진과 함께 진열된 신발에 히트 모양의 풍선이 매달려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